

# 열두줄 현으로 현대 국악 영역 넓힌 거장

## 가야금 명인 황병기 타계

67년 '현위의 인생' 교수  
창작 가야금 음악 창시자  
첼로 기법 도입 파격연주도

'가야금 명인' 황병기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31일 오전 3시15분께 별세했다. 향년 82세. 황 교수는 지난해 12월 뇌졸중 치료를 받은 이후 합병증으로 폐렴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1936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창작 가야금 음악의 창시자이자 독보적 존재로 현대 국악 영역을 넓힌 거장으로 꼽힌다.

고인은 중학교 3학년 때(1951년) 가야금에 반했다. 6·25전쟁을 피해 부산의 천막학교에서 공부하던 때, 우연히 학교 근처의 고전무용 연구소에서 가야금을 하던 노인을 만나게 된 것이다. 고인은 지난 2013년 8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 당시를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매혹됐다"고 회상했다.

이후 고인은 중·고교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다닐 때도 가야금을 놓지 않았다. 당대 명인이었던 김영운, 김운태, 심상진, 김영제 선생에게 정악과 산조를 배웠다.

고인은 인터뷰에서 "한때 가야금을 그만 둘 생각을 한 적도 있다"며 "가야금으로 먹고 살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작한 만큼 진수를 맞았고 그만두지는 생각이었는데, 진짜 맛을 알고 나서 그만둘 수 없었다"며 "내가 출판사, 다큐멘터리 영화사, 화학공장을 운영하는 등 많은 직업을 갖게 된 이유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고인은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대에 국악과가 개설돼 학생들을 가르쳤고 1974년



지난 2013년 8월 서울시 성북구 북아현동 언덕에 있는 창작실에서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는 황병기씨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부터 2001년까지는 이화여대 한국음악과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1985년에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객원 교수로 강의도 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국립국악원 악단 예술감독을 연임했다.

고인은 교육 활동뿐 아니라 연주 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다.

1964년 국립국악원의 첫 해의 공연이었던 일본 공연에서 가야금 독주자로 참가했고 1986년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가야금 독주회를 열기도 했다. 1990년에는 평양에서 가야금을 연주했다.

그가 작곡한 작품으로는 1975년 명동국

립극장에서 발표한 '미궁', 신라음악을 되살린 '침향무', 신라고분에서 발견된 페르시아 유리그릇에서 영감을 얻은 '비단길' 등이 있다. 특히 '미궁'은 그의 작품 세계를 잘 드러낸다. 가야금을 첼로 활과 솔대(거문고 연주막대) 등으로 두드리듯 연주한 곡으로 사람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를 표현하는가 하면 절규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삽입되기도 했다. 이 같은 파격 때문에 1975년 명동극장에서의 초연 당시 한 여성 관객이 무섭다며 소리를 지르고 공연장 밖으로 뛰어나가는 해프닝도 있었다.

고인은 현대무용가 흥신자, 첼리스트

장하나, 작곡가 윤이상, 미디어아티스트 백남준 등 다양한 장르, 세대의 예술가들과 활발히 교류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2004년 호암상, 2006년 대한민국 예술원상, 2008년 일맥문화대상, 2010년 후쿠오카 아시아 문화상을 수상했으며, 2003년에는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부인인 소설가 한말

숙씨와 아들 준목·원목씨, 딸 혜경·수경씨가 있다. 장례식은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에 마련됐다. 장지는 용인천주교묘원이며 발인은 오는 2일이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세계가 사랑한 '침향무', 활로 연주한 '미궁'

### 황병기의 음악세계

지난 31일 별세한 '가야금 명인' 황병기(82)씨는 생전 세상 어디에도 없는 '황병기만의 음악'을 추구했다.

그는 지난 2013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온전히 내 음악을 만들면 그걸 대중이 좋아하게 돼 있다"며 "대중이 좋아할 것이라고 만들어봐야 쓸모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962년 서정주의 시에 곡을 붙인 '국화 옆에서'를 통해 가야금 연주자로 첫 발을 내디뎠다. 같은 해 한국 최초의 가야금 현대곡으로 통하는 '숲'을 창작했다. 창작음악 중에서는 1974년 신라 음악을

되살린 '침향무(沈香舞)'가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다. '침향무'는 서역과 항토적인 것을 아우른 깊은 법열(法悅)의 경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음반은 20만 장 이상 팔렸고, 전통음악 연주자들이 즐겨 연주한 덕분에 악보만도 14쇄를 찍었다.

"저는 창작 당시 우리 전통 음악은 100% 조선조 음악이라고 봤죠. 조선조 음악은 유교 영향을 받은 '놀린' 음악입니다. 이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려는 창작 의도가 깃들여 있는 곡이 침향무입니다. 아류가 아니라 원류로 돌아가면서 조선조를 탈피한 것입니다. 침향무를 서양사람들도 좋아하는 것은 한국음악이라기보다 범아시아, 동양적이기 때문인 것 같아



침향무 미궁 비단길

요. 침향무 발표도 우연인지 몰라도 네덜란드 순회공연에서 이뤄졌지요. 동양의 정수를 보여주는 음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

니다." 고인은 인터뷰 당시 "침향은 인도가 원산지인 향기 이름으로 동양에서는 고귀하고 비싼 향으로 여겨졌다"며 "침향이 서린 속에서 주는 향이 침향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975년 명동 국립극장에서 초

연한 '미궁' 역시 황병기의 대표작으로 통한다. '미궁'은 첼로 활과 솔대(거문고 연주막대) 등으로 가야금을 두드리듯 연주하고 무용인 흥신자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덧입은 파격 형식의 곡이었다. 2000년대 들어 미궁 관련 괴소문이 퍼지면서 젊은 층에서 관심을 가졌다. 2001년 발매된 '화이트데이: 학교라는 이름의 미궁'에서 메인 BGM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전은재기자 ej6621@

## 구례 섬진강변서 가야계 유물 발견



구례에서 나온 가야계 토기들.

구례 섬진강변에서 가야계 토기를 묻은 무덤이 확인됐다.

구례군과 (재)마한문화연구원(원장 조근우)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구례 용두리 고분' 유적에서 가야계 토광포 3기와 가야계 토기, 청동기 시대 집자리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구례 용두리 고분은 1980년대부터 경작과 개간과정에서 가야계의 많은 유물이 수습된 곳으로, 이번 조사는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유적의 정확한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에 발굴된 유적은 섬진강과 가까운 용두마을 남쪽 낮은 구릉에 자리한 섬진강을 드나들던 배를 매는 '배들재'라는 지명이 있던 곳이다.

발굴된 가야계 토광포 3기는 모두 구덩이인 묘광(墓坑)으로 그 안에 넣는 곡이나 관 사이에 회색 점토를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 가운데 3호묘는 묘광 크기가 길이 330cm, 너비 130cm, 깊이 20cm에 이르며 내부 목곽은 길이 280cm, 너비 80cm이다. 피장자 머리 쪽에서는 목짧은 항아리, 손잡이잔, 바리 모양 토기, 가락바퀴, 쇠칼이 나왔고 발 근처에서는 목짧은항아리와 굽다리접시도 발견됐다.

3호묘와 인접한 곳에 조성된 2호묘는 묘광의 규모가 길이 210cm, 너비 74cm, 깊이 18cm로 조사됐다. 이 무덤 또한 머리쪽에서 목짧은항아리, 굽다리접시 등이 발굴됐다.

마한문화연구원 측은 "용두리 고분에서 나온 토기들은 대부분 가야계"라며 "아라가야, 소가야, 대가야 등의 유물이 고루 출토된 점으로 보아 이 일대에 거주하던 집단이 섬진강뿐만 아니라 내륙을 통해서도 가야와 교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이매진 도서관 '순례학교'서 다양한 강좌

### 내일 임의진 관장 월드뮤직 강연 시작

자생적 문화 공간 '메이홀' 2관 이매진 도서관이 다양한 강좌가 어우러진 '순례학교'를 시작한다.

개관 2주년에 맞춰 시작되는 순례학교는 2일 임의진 관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여행, 미술, 음악, 인문, 종교, 시민정치, 광주 전남 지역학 등 매달 1~2회 진행한다.

강사진으로는 일지암 법인 스님, 홍성담·한희원 화백, 박남준 시인, 최광선 호남신학대 교수, 김진호 제3시대 그리스도연구원장, '고래가 그랬어' 김규환 대표, 어린이 잠언연구소 범은경 소장, 한희원·홍성담 화백, 유광순레단 박영규 교수, 세월호 시민순례단 이민철 대표, 진도 민요 전수자 정안희 선생, 우리무예 달하 김성수 선생, '이 등병의 편지' 작곡가 겸 가수 김현성 씨 등이 참여한다.

첫 강의는 임의진 관장이 진행하는 '클래식&월드뮤직 공부 1'(2일 오후 7



임의진 관장

시)이다. 임 관장은 아울로스 미디어 월드뮤직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EBS '세계 테마기행' 중남미 편의 전문 출연자이기도 하다.

3월부터는 매주 요가수업을 진행하며 광주 동구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책임기 모임도 진행한다.

이매진 도서관은 지난 2016년 1월 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앞 메이홀 2관에 문을 열었다.

기중으로 마련한 양서들과 동화책들을 갖추고 있으며 5·18 민주항쟁 관련도서 전문 아카이브로 2천권의 관련 도서가 비치돼 있다.

참가비 1만원. 문의 010-4132-816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